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증병원협회

유휴간호사 재취업 성공기 '다시 도전하는 제2의 인생'

48세에 다시 찾은 꿈, 나는 간호사



노 은 주 | 서울재활병원

간호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4개월의 짧은 경력을 끝으로 간호현장을 떠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왔다. 2015년 가을 낱아든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문 한 통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나는 짧은 날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던 병원간호사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유휴간호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을 받으며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느낌이 들었다. 스무살인 딸은 엄마가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실기교육을 받으며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꿈이 간호를 기억하고 있음을 느끼고 용기를 얻었다. 병원실습에서는 22년이나 떠나있었던 간호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몽롱했다. 취업문을 두드리는 순간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컸다. 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노력한 결과 서울재활병원(원장·이지선, 간호과장·백미정) 소아병동에 취업하게 됐다. 환자 중심으로 열려 있는 병원장님의 마인드와 따뜻한 병원 분위기가 좋았다.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용기를 냈고, 병동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병동에서 사용하는 약을 공부하고, 간호업무 노트에 기록해 복습과 예습을 하고, 모르는 것은 책을 사서 읽었다. 이런 나를 보고 남편은 고시공부를 하느라고 놀리기도 했다. 입사 6개월이 된 지금은 일은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 계속 공부하고 있다. EMR(전자처방기록) 등은 전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업무를 했기에 다행

히 바로 적응할 수 있었다. 취업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병원 개원 후 유휴간호사가 채용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내게 나이가 있는데 3교대 근무가 힘들지 않느냐고 많이 묻는다. 남편과 딸이 응원해주고 있는 덕분에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나 같은 경력단절 간호사들을 교육시키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놀랍고 부럽다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새 직장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도와준 서울권역센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간호과장님과 수간호사님,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유휴간호사들에게 말하고 싶다. 도전하라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48세인 나도 해냈다고.

재취업 될까 걱정 말고 센터 문 두드려라



홍 성 화 | 인천 한림병원

나는 임상경력이 매우 짧았고 병원을 떠난 지 오래된 유휴간호사였다. 그동안 병원간호사의 길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덕분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금은 인천 한림병원(원장·정영호, 간호부장·홍희숙) 외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랜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면허효력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 마침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유휴간호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다. 재취업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우선 간호사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부터 이수하자는 마음으로 센터에 신청해 교육을 받았다.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간호정책에 대해 이해하게 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간호사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인천의료원에서 병원실습을 마쳤고, 이후 재취업에 도전해 한림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경력단절기간이 20년 정도로 오래됐던 만큼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나에게 꼭 필요했고, 재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센터를 통해 구인을 요청하는 병원과 재취업 의사가 있는 유휴간호사가 연결되거나 시간 소모와 심리적 압박을 덜 수 있어 좋았다. 얼마 전 토론토대 심리학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기사로 접했는데 나이에 대한 고

정관념이 인지기능과 기억력, 개인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타인 또는 자신의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때 수행능력이 선순환되는 경험을 하고, 우리 사회는 더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가진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유휴간호사들도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유휴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병원들이 유휴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재취업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동안 격려하고 성원해주신 인천권역센터에 감사드린다. 휴식기가 길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적응기간이 필요했던 나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도와주신 한림병원 홍희숙 간호부장과 병동의 동료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세 딸이 간호사 엄마가 자랑스럽대요



노 은 경 | 대전 대청병원

나는 세 딸의 엄마이자 간호사이다. 2005년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5년 정도를 한 병원에서 버텼다. 그 후 결혼하고 큰 아이가 자라면서 3교대로 일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기에 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2009년 일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내려왔다.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바라던 둘째가 생겼다. '이

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하며 6년 동안 살림과 육아에만 신경 썼다. 그러다 셋째가 생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갔다.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이 지나 막내가 네살이 될 무렵, 큰 아이는 학교에 가고 두 꼬맹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홀로 집에 남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았다. 그날이 그날 같고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간호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안내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게 됐다. 언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간호사 면허가 정지되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대한간호협회로 문의전화로 했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안내 받게 됐다. 그렇게 시작된 유휴간호사 교육은 강의와 실기, 병원실습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나에게서는 뜻깊었다. 한 남편의 아내, 아이들 엄마로서의 삶을 살다가 간호사로서의 나를 다시 한 번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나는 여러 실습병원 중 대청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됐다. 응급실에서 실습하면서 첫 직장 때 응급실에서 설레며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신 간호부장님과 팀장님, 수간호사님들이 아낌없이 조언해주고 실습 지도를 해주셨다. 나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대전권역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후 대청병원(원장·오수정, 간호부장·서미경)에 취업해 외과병동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낮근무만 하고 있다. 아침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후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직장생활에 살림과 육아까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아이들은 간호사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한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니 남편도 고마워한다. 또 또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동료 간호사들 지지와 도움 덕분에 잘 적응



김 예 희 | 계명대 경주동산병원

간호대학 졸업 후 대학교 보건실에서 14년을 근무했고, 이후 전업주부로 2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메르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뉴스를 접하며 당장이라도 뛰어가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함께 할 수 없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었다. 가슴 한 곳에 묻어두었던 병원간호사로서의 꿈도 다시 살아났다. 그 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부터 '유휴간호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센터

토로 문의를 했고, 임상경험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해주셔서 용기를 내 도전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경주에서 대구권역센터까지 오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병원실습은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줘 계명대 경주동산병원에서 실습을 했다. 실습기간 내내 간호대학생 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며 신나게 일했다. 실습병원에서 좋게 봐주고 기회를 주셔서 계명대 경주동산병원(원장·송달원, 간호팀장·윤병숙)에 취업하게 됐고, 올해 3월부터 내과병동에서 일하고 있다. 면접을 보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유휴간호사인 나를 믿고 기회를 주신 병원장님과 간호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습할 때 만난 권정남 수선생님과 현재 일하고 있는 내과병동 박영실 수선생님께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배워나갈 수 있었다.

동료 간호사들 역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주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줘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하나씩 공부하고 배우가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처음해보는 3교대 근무가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체력을 관리하며 잘 적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다른 유휴간호사들이 내가 일하는 병동에 실습을 나왔다. 예전의 내 모습이 생각나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그 간호사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병원현장으로 돌아올 결심을 굳힐 수 있도록 도움이 돼줬다는 책임감도 생겼다.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도와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감사드립니다. 간호사로 지금까지 갖고 보람을 느끼며 평생 현장에 머무르고 싶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해 나갈 하루하루가 새롭게 기대되고 설렌다.

용기와 도전으로 경력단절의 벽 뛰어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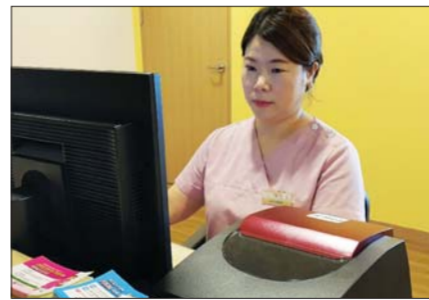
박 주 연 | 부산 상록병원

나는 올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재취업한 유휴 12년차 간호사다. 결혼 후 거주지를 옮기면서 병원을 그만두게 됐고,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에서 쌓은 10여년의 경력이 단절됐다. 처음에는 곧 간호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 둘을 세 살 터울로 낳아 기르다보니 몇 년이 훌쩍 흘렀다. 속속 크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했지만, 허전함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줄어들며 곧

회된 셈이다. 그동안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집안일을 비롯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간호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 것 같아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가족들은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있고, 남편은 집안일을 적극 도와준다.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아이들은 출근하는 나를 보며 '엄마 멋지다'고 말해주고, 스스로 숙제를 찾아하며 나를 안심시켜준다. 내가 다시 일하고자 하는 결심을 굳히고 나니 주위에서 모두가 도와줬고,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딘 후로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 나이나 경력단절 기간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용기가 더 중요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도와주는 대한간호협회가 있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있기에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유휴간호사들에게 말하고 싶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 첫 발을 내딛으라고!

부담감이 밀려왔다. 그렇지만 내 맘속에서는 인상이 계속 그리웠고, 첫 발을 떼는데 성공했다. 출근하고 처음 한 달간은 정말 전장과 같은 나날이었다. 5살, 7살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울고 있기도 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들렀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바람에 출근시간에 쫓기기도 했다. 병원에는 활기가 넘친다. 잠시도 정신을 놓을 수 없는 긴장감, 나의 잘못이 뻔뻔하게 피드백 되는 곳이다. 반면 정맥주사로 불편함을 호소해 새 위치로 바뀔 때면 박수처럼 좋아하는 분을 볼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간호사로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에 너무 감사한다. 잠든 있던 나의 열정과 열의가 되살아난 것에 감사한다. 간호사로 한걸음 10년, 20년 꾸준히 지키나가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 존경스러움이 절로 생겨난다. 매순간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잠든 간호사의 열정을 깨우다



석 은 정 | 전북 고창종합병원

이수하게 됐다.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던 중에 먼저 고창종합병원(대표이사·조남열, 간호부장·오영미)에 취업이 됐고, 이곳에서 실습을 했다. 광주권역센터에서 이론수업과 병원실습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 큰 힘이 됐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니 스런지가 물을 흡수하듯 살아있는 교육이 됐다. 고창종합병원에서는 육아를 해야 하고 교대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을 위해 '주간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다. 나는 분만실에서 주간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7년을 쉬고 40대에 접어들어 다시 병원에 나왔더니 간호학생 때의 느낌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다. 다리는 통통 부었지만 내 안의 열정은 새록새록 솟아났고,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자동으로 생겼다. 처음 시작하는 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실수하거나 잘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이지? 일도 잘 못하고, 아이들과 집안 일도 엉망이 되면 어쩌이지? 많은 고민과

부담감이 밀려왔다. 그렇지만 내 맘속에서는 인상이 계속 그리웠고, 첫 발을 떼는데 성공했다. 출근하고 처음 한 달간은 정말 전장과 같은 나날이었다. 5살, 7살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울고 있기도 했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들렀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바람에 출근시간에 쫓기기도 했다. 병원에는 활기가 넘친다. 잠시도 정신을 놓을 수 없는 긴장감, 나의 잘못이 뻔뻔하게 피드백 되는 곳이다. 반면 정맥주사로 불편함을 호소해 새 위치로 바뀔 때면 박수처럼 좋아하는 분을 볼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간호사로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에 너무 감사한다. 잠든 있던 나의 열정과 열의가 되살아난 것에 감사한다. 간호사로 한걸음 10년, 20년 꾸준히 지키나가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 존경스러움이 절로 생겨난다. 매순간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